

보명, 폐유 정제않고 난방연료 사용기술 개발

폐유를 정제하지 않고도 일반 경유처럼 난방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연소기술이 개발됐다.

보명비엔엠(대표 오창명)은 최근 폐오일과 폐유압유 등 다양한 폐유를 아무런 정제과정 없이 직접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연소장치를 개발해 양산에 들어갔다.

폐유는 제조공장이나 차량정비업소, 농가 등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산업폐기물로 일반적으로 소각하거나 화학적 처리에 의해 정제·분해해 처리한다.

하지만, 완전 연소되지 않고 연소되더라도 다량의 유해물질이 발생해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화학처리를 하게되면 막대한 시설·처리비용을 필요로 한다.

보명비엔엠이 개발한 폐유연소기술을 적용하면 환경오염의 주범인 황산화물(SO_2)과 질소산화물(NO_x) 등이 자동차부품연구원 시험분석 결과 각각 22.4ppm과 52.7ppm으로 나타나 배출허용 기준(250-270ppm)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로부터 환경신기술(제27호)로 지정받았으며 실용신안도 등록했다. (031)766-9443

< Chemical Daily News 2002/ 06/ 12 >